

“무연고 아동 사회가 품도록 적극 알려야죠”



아동복지시설서 음악 재능기부

광주광산우체국 행복나눔봉사단

광주광산우체국(국장 박호열) 행복나눔봉사단은 최근 광산구 아동복지시설 ‘용진음악아울’을 방문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단원들은 광산우체국 직장동호회 ‘광산밴드부’의 재능기부 밴드공연을 선보이며 시설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광산우체국은 매달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밀착한 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동부경찰-장애인복지관 업무협약



광주동부경찰(서장 장영수)은 26일 동구장애인복지관과 취업지원 등 범죄피해자의 사회 복귀와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동부경찰 제공>

광주지법, 변호사 합격 연수자 재판 직무교육



광주지방법원(법원장 김광태)은 26일 법원 사회의실에서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광주지역 법원사무장사기관에서 연수 중인 26명을 대상으로 재판 실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지방법원 제공>

인사

◆광주대
▲기획처장 김현종 ▲교무처장 한규무 ▲입학처장 이득기 ▲학사지원처장 윤홍상 ▲산학협력단장 김정근 ▲LINC+사업단장 김강용 ▲기획부처장 박경종 ▲교무부처장 방요순 ▲입학부처장 김한성 ▲학생지원부처장 이윤호 ▲산학협력부처장 김광현 ▲LINC+사업부처장 노선식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호취

▲나명영(아마란도·전 광주일보 국장)·김윤정(마르시아)씨 장남 현철(프란치스코)군 이현복·김숙례씨 장녀 하영양=7월2일(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 동구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등문회

▲광주 효동초등학교 45회 동창회(회장 오경열) ‘응답하라 1987 상상하라 2017’ 행사=7월1일(토) 변산국립공원 일대시 진행.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관광버스 출발, 문의 오경열 회장 010-6286-3707.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학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 국제고·전남여고 등 5개교 참여 프로젝트 ‘품다’ 영상 제작

광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광주·전남지역 무연고 아동복지 프로젝트 ‘품다’에 참여한 학생들이 드디어 결과물을 내놨다. 무연고 아동에 대한 후원을 이끌어내는 ‘کم페인 영상’이다. ‘품다’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고 ▲동신여고 ▲문성고 ▲송덕고 ▲전남여고 등 광주 5개교고 학생 40여명은 각 학교별로 동영상 제작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문화기획 및 영상제작 교육을 받은 뒤 멘토 역할을 맡은 지역 대학생들과 팀을 이뤄 3주간 영상촬영과 편집, 녹음 등 영상콘텐츠 제작 작업을 진행했다. “문화기획과 영상제작 모두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고, 어떻게 해야할 지도 잘 몰라 어려웠죠. 조금씩 홍보활동도 하고 대학생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무연고 아동을 돕기 위한 저희의 진심이 알려진 것 같아 뿌듯하네요.” (노상훈 국제고 3년) 영상은 2~5분짜리 총 5편이다. 무연고 아동의 실태와 보육시설·교사 부족 등 문제점을 강조하는 영상은 물론, 각자의 아이디어를 더해 무연고 아동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참여 학생들은 학업과 영상제작을 병행하면서도 교내에서 추가 문화기획 활동을 이어가는 등 남다른 열정을 보여줬다.

광주일보·초록우산 공동 주최 무연고 아동실태·보육시설 등

2~5분짜리 영상 5편 만들어

유튜브·페이스북 통해 홍보

“품다” 프로젝트
광주·전남지역 무연고 아동복지 사업이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획 경험을 제공하고 리더십을 길러주기 위한 공익형 사업이다. 참가 학생들이 나눔과 문화기획을 접목한 창의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문화기획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고, 추후 이들이 기획활동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광주지역 무연고 아동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별로 기획회의를 거쳐 포스터와 피켓을 직접 제작한 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무연고 아동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포스터는 교내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등에 부착해 홍보했다.

특히, 자체적으로 무연고 아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올 수 있는 각자의 홍보물도 제작해 교



무연고 아동 돕기 프로젝트 ‘품다’ 광주지역 참가 청소년들이 지난 3일 문화기획·영상제작 교육을 받고 있다.

내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진행했다. ‘나눔팔찌’나 ‘나눔찬사 사진’, ‘초록우산 스티커’ 등을 만들고 나눠주면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학생들은 각 학교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등 SNS 채널에 무연고 아동 돕기 프로젝트 ‘품다’ 홍보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해왔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들도 소중한 손길과 시선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백아현 전남여고 3년)

한편, 무연고 아동돕기 프로젝트 ‘품다’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작한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볼 수 있다. ▲국제고(youtu.be/-JKYLL6fFY0) ▲동신여고(youtu.be/znfkJVW86iE) ▲문성고(youtu.be/bM4bSudoFeY) ▲송덕고(youtu.be/Oe26b83jmRE) ▲전남여고(youtu.be/FEwGKSod6aY)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

최범채 광주 시엘병원장 몽골 대통령 훈장 받아

인구증진 기여 공로

아시아인 의사 최초

난임 치료 시험관 아기사술 전문병원인 광주 시엘병원의 최범채 병원장이 최근 몽골 정부로부터 국민보건 발전과 인구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치하야 엘베도르지’ 몽골 대통령 공훈 훈장을 받았다. 이날 훈장은 대통령공에서 ‘바이아르사이한’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대신해 수여했다. 이 훈장은 외국인으로는 미국인 의사가 처음으로 받은 이후, 아시아인 의사로서는 최초다. 시엘병원은 7년여 동안 몽골에서 꾸준한 의료지원사업과 40여명에 달하는 의료 연수생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 또한 몽골국립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등 몽골 미래 의료발전에 기여할 의료분야에 쏠려나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몽골에서 많은 난임 부부들이 시엘병원을 방문, 시험관아기사술을 시행 받아 300여 쌍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해 몽골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몽골 현지병원 등에서 많은 몽골 의대생을 가르쳐 난임 치료 전문가로 양성중이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 병원장은 이미 몽골 보건성 장관상, 식약청 청장상을 받은 바 있다. 최범채 병원장은 직원 수의 10%를 다문화



최범채(왼쪽) 시엘병원장이 몽골 대통령 훈장을 받은 뒤, 바이아르사이한 비서실장과 기념 촬영을 했다. (시엘병원 제공)

여성으로 채용하는 등 지역에서는 최초로 해외 환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였다. 지난 7년 동안 몽골과 몽골인들로부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100만달러 가량의 투자를 통해 ‘몽골 시엘난임센터(Mong CL Fertility Center)’를 개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금호고속·한국방문위원회 ‘K스마일 캠페인’

금호고속(사장 이덕연)은 최근 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와 ‘K스마일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

K스마일 캠페인은 친절과 미소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 참여형 친절 캠페인이다. 2016-2018한국방문의 해와 2018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금호고속은 이날 캠페인에서 고속버스 승무사원의 친절의식을 높이기 위한 친절하게 인



사하기와 환하게 웃어주기, 고운 말 사용하기 등의 실천을 다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예방·회복수기 공모전’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제3회 중독예방 및 회복수기 공모전을 한다.

공모대상은 일반시민 및 중독회복자로 공모 주제는 ‘음주 및 기타중독 회복사례’이며, 중독자 및 그 가족이 경험한 회복수기를 자유산문 형태로 내면된다.

응모신청서는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www.kaacc.co.kr),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www.gmhc.kr) 등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 선정은 보건복지부장관상 1명,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장상 1명,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상 1명, 한국중독정신의학회상 1명 등 총 12편을 선정한다.

신일본 광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장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중독자들의 회복동기를 높이고 중독자로 인해 지친 가족을 위로해 중독예방과 치료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